

# 근대사회가 박멸해온 자연스러운 죽음

인간의 죽음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천선영 |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인자의 궁극적인 이름이 자연이라는 사실은 오늘의 과학만능 사회에서도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의 길이, 그 정해진 삶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으로 인간을 인간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온 이유를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고야는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명의 의사를 그렸다. 그림 밑에는 이렇게 써어 있다. ‘대체 어떤 병으로 그는 죽을 것인가?’ ... 그는 죽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 죽음에 이름을 붙여야만 한다. 그것이 의사들의 관심사다. 그리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지? 의사들이 ‘치명적’이라고 선언하고 난 뒤 (그 ‘치명성’은 환자를 고쳐 보기 위한 모든 시도를 포기하게 할 만큼 치명적일 터이다) 그들은 살인자를 발견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살인자는 다름 아닌 자연이다.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우리의 첫번째 날과 함께 마지막 날도 선물하는 것이다.”(장 그르니에, <명명이 가능하였던 죽음, 그러나 영원히 풀 수 없는 미제(未濟)>, 《어느 개의 죽음에 대하여》, 36~37쪽)

## 막거나 연기될 수 있는 오늘날의 죽음

부고를 접했을 때 우리는 그 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묻는다. 물론 이 질문은 보통의 경우 사망 원인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그 대답으로 사고사 혹은 병사했다는 말을 듣는다. 질문하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우리는 끊임없이 납득 가능한 죽음의 원인을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살인자를 찾듯이...

오늘날 하루가 다른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도, 우리가 죽는다면, 아니 죽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때’가 다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실존적 유한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절하게 치료 혹은 대응하지 못한(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좀 더 합당한 치료나 대응이 가능했던, 혹은 가능해질) 질병이나 사고



오늘날의 죽음은 우리의 실존적 유한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질병이나 사고 탓으로 설명된다. 그림은 클라우스 로자노프스키의 <의사와 죽음>.

탓으로 설명된다. 죽음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 죽음은 특정 개인을 죽음으로 이끈 어떤 특정 원인의 결과다. 우리는 지나친 흡연과 음주 때문에, 잘못된 (식)생활 습관 때문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질병이나 특정 사고의 결과를 치료할 수 있는 약과 방법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의 오진이나 과실 때문에, 나아가 장기이식을 비롯한 새로운 의학기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쩌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필연적 유한성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혹은 가능해야 할) 여러 원인들로 해체된다. 인간의 실존적 유한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명명될 수 있는 죽음은 그렇지 않다. 개별적인 죽음들은 원칙적으로는 발견되고 통제되며 피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 내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의 정확한 ‘이유’를 발견해야 한다. 누구도 ‘원인’ 없이 죽지 않는다. ‘노환’이라는 단순한 사망진단은 오히려 우리에게 낯설고, 의심스러운 것이 돼버렸다.

## 죽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근대사회

이런 사유는 사실 근대사회에 내재하는 자기이해 방식 그리고 계몽적인 존재 양식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통제와 지배가 가능한 것으로 상정하는 근대사회의 자신만만한 야심과 무제한적 자기 신뢰는 그 어떤 장애물도 인정할 수 없고, 조정과 통제를 방해하는 어떤 핑계나 구실도 용납할 수 없다. 인간 이성이 구현되는 장으로서 근

대세계에서 기대되지 않았던 것들, 예측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모든 우연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제거돼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어느 것도 운명, 신의 의지나 악마의 저주 또는 우연의 결과로 규정되거나 해석될 수 없으며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따라서 편재적이고 극복될 수 없는 그 무엇으로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사유는 근대사회에서 원천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다. 죽음은 근대사회라고 하는 거대하고도 대담한 세계의 기획에서 이성의 수월성이 제공하는 약속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의미한다. 이성에 의해 계획되고 통제돼야 할 세계에서 죽음은 아마 운명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의 '최후의 잔재'라 할 것이다.

이 불쾌한 존재를 제거하기 위해 시도되는 방법들은 다양하다. 죽음에 대한 침묵, 죽어 가는 이들에 대한 격리, 그리고 신속하고도 위생적인 방법으로 사체(死體)를 추방하는 것. 그러나 가장 과격 한 방법은 '죽음'(Der Tod)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다.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상황의 극한'으로서 죽음은 이제 치료 혹은 해결되거나 피할 수 있었을 '개별적 죽음'(Todesfall)들로 해체 내지는 재구조화된다.

넘어설 수 없는 죽음은 운명이나 신의 의지 혹은 우연이 아닌, 본래적으로는 넘어설 수 있는 고통,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환원돼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더 이상 우리의 유한성이 아니며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우리의 불멸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들'과 전쟁을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참으로 많다. 특정한 질병을 이기기 위해, 혹은 사고들의 원인을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은 길기만 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데 너무

몰두해 그 일들이 결국에는 공허하고 허무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할 겨를이 없다.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에서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또 다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공 한다. 어떤 질병이 영원히 절대적으로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은 생각 하기 어렵다. "암, 결국 치료비 싸웁니다"(홍국생명 광고문안)와 "21세기 한국인 지병은 없다"(《한겨레》2000 연중기획 건강 캠페인 제목) 등은 이런 사고의 일단을 반영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부분적 승리를 얻어낼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스무 가지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피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죽음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 자연스러운 죽음 여전히 유효해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는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종 잊혀진다. 아니

잊어버리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노베르트 엘리아스의 언급 대로 우리는 전통사회에서 삶이 상대적으로 짧고 불안정했고, 기아와 전염병의 공포가 자주 인간의 삶을 위협했으며, 종종 지극히 폭력적 상황에 노출돼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의·과학의 급속한 발전,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 그리고 평균수명의 급속한 증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측면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그러함'으로서 자연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오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또한 필요하다. 요즘 몰릴 듯이 쏟아지고 있는 성형외과의 광고들은 역설적이 게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약속한다. 이제 '자연스러운 죽음'도 만들어져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인자의 궁극적인 이름은 다름 아닌 자연이라는 사실은 오늘의 과학만능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삶의 길이, 그 정해진 삶에 대한 인식이 역사적으로 인간을 인간이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온 이유를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과연 인간은 '왜' 죽는가? 우리가 특정한 사망 원인으로 명명된 죽음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만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상호주관적 의미구조에 편입돼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표지가 아닐까. 그리고 '왜'라는 질문은 본디 우리 삶을 근거 짓는 가장 근본적 질문의 하나라는 사실도 함께 떠올려야 할 것이다.■

#### 죽음을 다룬 책들

| 제목                     | 저자           | 역자    | 출판사   |
|------------------------|--------------|-------|-------|
| 《죽음 앞에 선 인간(전2권)》      | 필립 아리에스      | 유선자   | 동문선   |
| 《죽음의 역사》               | 필립 아리에스      | 이종민   | 동문선   |
| 《인간과 죽음》               | 에드가 모랭       | 김명숙   | 동문선   |
| 《죽어가는 자의 고독》           | 노베르트 엘리아스    | 김수정   | 문학동네  |
| 《춤추는 죽음(전2권)》          | 진중권          |       | 세종서적  |
| 《죽음 그 마지막 성장》          | 부위훈          | 전병술   | 청계    |
| 《죽음의 얼굴》               | 니겔 발리        | 고양성   | 예문    |
| 《떠남 혹은 없어짐》            | 유호중          |       | 책세상   |
| 《죽음의 미학》               | 김영훈          |       | 시와사회  |
|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 | 하현명          |       | 예문서원  |
| 《인간의 죽음》               |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 성 염   | 분도출판사 |
| 《죽음이란 무엇인가》            | 한국종교학회       |       | 창     |
| 《인력사 논쟁》               | 제럴드 드워킨 외    | 석기용 외 | 책세상   |
| 《자살론》                  | 에밀 뒤르켐       | 김충선   | 청아출판사 |
| 《자살의 연구》               | 알프레드 알바레즈    | 최승자   | 침하    |
| 《자살, 도대체 왜들 죽는가》       | 마르탱 모네스티에    | 한명희   | 새움    |

천선영씨는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원혜대 사회학과에서 <근대 사회와 문화 안에서 죽음의 이행 가능성과 사회적 소통성>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경희대에서 강의하고 있다.